

01 교회소식

우리 곁에 가득한 말씀의 보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저서와 GCN방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

02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도’ 시리즈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걸음을 네 깃으로 나누어 가졌으며 속옷은 나누지 않고 재빨랐는데, 이는 이스라엘 역사를 예표한다.

03 기획특집

해외 곳곳에서 들려오는 찬양~

주일 저녁예배 시 해외 지교회에서 보내온 특송 영상이 랜선으로 함께 하는 국내외 성도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04 간증

응답과 축복이 넘치는 신앙생활

자궁암, 우울증 등 질병이 치료되고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의 변화와 삶에 축복이 넘치는 국내외 성도들의 간증.

만민뉴스

제946호 2021년 6월 20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배려

상대를 사랑하면 배려합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배려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배려 깊은 사람은 약속 시간을 잡아도 먼저 상대의 편리, 상대의 마음, 상대의 여건 등을 생각합니다. 내가 손해 본다 해도 상대의 유익을 구해 줍니다. 혹 상대에게 어떤 지적이나 권면할 일이 있다면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기분 좋을 때를 살피서 상처받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말 한 마디, 행동 하나도 항상 상대의 입장을 살피서 하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면 따뜻하고 평안합니다.

“...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벧전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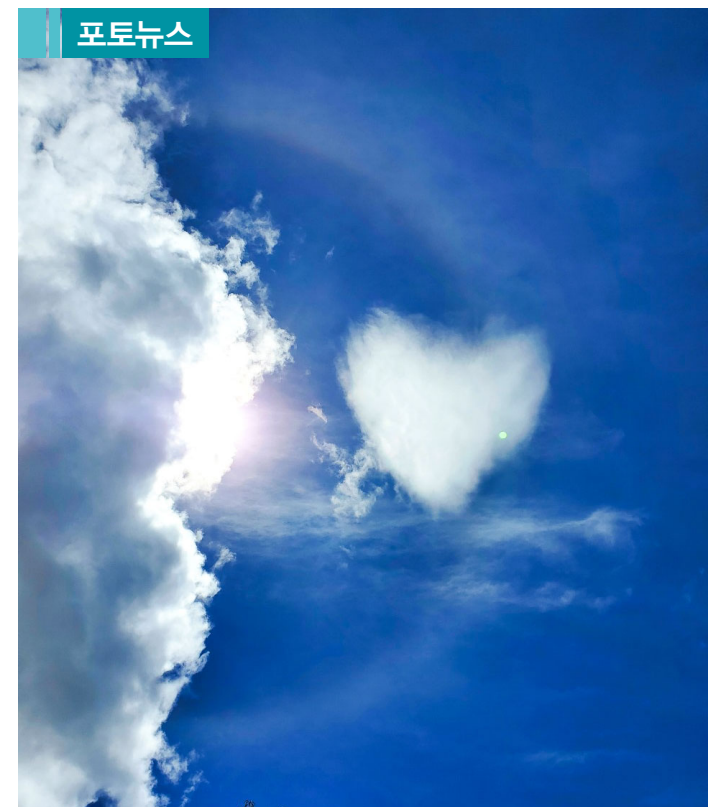
이재록 목사 저서 5종 오디오북 발간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저서 『십자가의 도』를 비롯 『사랑은 율법의 완성』, 『믿음의 분량』, 『영혼육』(상),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가 오디오북으로 발간돼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가 낭독했으며, 발간 이후 교보문고 오디오북 부문 월간 종합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이 오디오북은 인터넷 교보문고와 네이버(오디오 클립)에서 구입해 들을 수 있다.



한편 이재록 목사의 저서는 현재 총 62개 언어 760종(한국어 112종, 외국어 648종)이 종이책으로 발간됐으며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히브리어 등 총 65개 언어 686종이 전자책으로 번역 발간됐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 앤 루니스,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전자책은 세계 최대 온라인 서점 아마존과 iBookstore, 구글북스를 비롯 교보문고, 리디북스, 인터파크 등 국내 인터넷서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포토뉴스



▲ 6월 5일(토), 콜롬비아 보고타 하늘에 해를 둘러싼 원형무지개와 하트구름이 선명하게 나타났다(특송을 준비하는 콜롬비아만민교회 '하늘 영광팀'을 만나고 돌아오던 길에 담임 장정연 목사가 휴대폰으로 촬영함).

비대면 구역예배를 위한 GCN방송 프로그램 '구역공과'



GCN방송 설교 프로그램 '구역공과'가 지난 3월 30일부터 매주 화, 목 오후 7시와 금요일 오전 11시 20분에 방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제작돼 후보 구역공과와 동일한 내용으로 구역예배(설교자: 이미경, 이미영, 임학영 목사)를 지원하고 있다.

GCN 위성방송, KT 올레TV 882, GCN방송 홈페이지&모바일에서 시청이 가능하며, 줌 구역예배 시 화면 공유를 통해 손쉽게 활용이 가능하다.

해외 지교회 특송으로 영광 돌려

주일 저녁예배 시 해외 지교회에서 보내온 특송 영상이 랜선으로 함께하는 국내외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고 있다. 정성껏 준비한 특송팀들은 현지의 특색을 살려 찬양과 위심으로 성도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지난 4월 18일 이스라엘의 드미트리 페트롭스키 목사를 시작으로 콩고 민주공화국 킨사사만민교회, 몽골만민교회,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만민교회, 몰도바만민교회, 말레이시아 6개 농아만민교회, 이스라엘의 올렉 하진 목사, 콜롬비아만민교회 등이 특송으로 영광 돌렸다(3면 참조).



당회장 이재록 목사

십자가의 처형(1)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요 19:23~24)

예수님께서서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에 심한 채찍질을 당해 피투성이가 되신 채 사형집행 장소인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셨습니다. 이때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 겹옷을 네 깃으로 나누어 가졌으며 속옷은 나누지 않고 제비뽑았지요.

이처럼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의 옷에 담긴 섭리와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신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백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겹옷과 속옷이 모두 벗긴 채 십자가에 달려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이처럼 수치를 당하신 까닭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함입니다.

만일 몸에 더러운 오물이 묻어 심한 악취가 난다면 즉시 씻어낼 것입니다. 이러한 오물보다 더 추하고 부끄러운 것이 죄인데, 많은 사람이 죄 가운데 살다보니 죄에 대해 무감각해졌지요. 그러나 빛이 비추면 더러운 것이 드러나듯이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을 비춰 보면 자기 안에 있는 부끄러운 죄들이 밝히 드러납니다.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자신의 더러운 마음과 행실이 날날이 드러나므로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게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와 능욕을 대신 감당하셨으므로 이를 믿는 우리는 죄인이 당할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 중심에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신속히 온전한 성결을 이룸으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2. 예수님 겹옷을 네 깃으로 나누게 하신 섭리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 겹옷을 네 깃으로 나누어 가졌으며 속옷은 나누지 않고 제비뽑았습니다(요 19:23~24). 이는 시편 22편 18절에 “내 겹옷

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라고 예언된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취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예수님의 옷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겹옷은 무엇을 의미하고, 왜 네 깃으로 나누어 한 깃씩 가졌으며, 이 말씀을 미리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서는 유대인의 왕이므로 여기서 ‘예수님의 겹옷’은 ‘이스라엘’ 또는 ‘유대 민족’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로마 병사들이 옷을 네 깃으로 나눔으로써 옷의 형태가 없어졌으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해 없어질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옷 조각은 남았으니 나라는 없어져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은 남을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겹옷이 네 깃으로 나뉜 것처럼, 결국 나라가 망해 유대인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40년이 채 못 되어 예루살렘은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 함락되었고, 성전 건물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버렸습니다(눅 19:43~44).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남았을 뿐 나라가 없어지니 백성은 사방으로 흩어져 핍박받거나 죽음에 이르렀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유대인 이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자 악의에 찬 군중은 더욱 소리 높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빌라도는 죄 없는 사람의 억울한 죽음에 자신이 관계없다는 뜻으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했지요. 이에 유대인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외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처럼 말한 것이 유대인과 그 자손들에게 그대로 보응되었다는 점입니다. 곧 이스라엘이 함락될 때에 무려 11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됐을 뿐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때에는 약 6백만 명의 유대인이 나치에 의해 희생됐지요. 그들은 벌거벗긴 채 참혹하게 죽어

갔는데, 이는 그들이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유대인의 왕이며 죄가 없는 예수님을 벌거벗겨 십자가에 처형하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말한 것이 엄청난 환난으로 임한 것입니다.

3. 예수님의 속옷을 나누지 않고 제비뽑은 섭리

예수님의 속옷은 호지 않고 통으로 짠 것이라 했습니다(요 19:23). 여기서 ‘속옷’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의 속옷은 이스라엘 후손들의 마음을 의미하며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시조는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의 열두 아들로 이스라엘 나라의 열두 지파를 형성하셨습니다(창 35:10~11). 이로써 이스라엘은 야곱의 열두 아들에 의해 기틀이 형성되어 순수한 단일민족으로 내려오다가 솔로몬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지요. 그 후 북이스라엘은 이방인과 결합하였으나 남유다는 단일민족으로 내려왔는데, 이들이 바로 오늘날 유대인이라 불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속옷이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는 말씀은, 곧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야곱에 의해 형성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방인과 섞이지 않은 순수한 단일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해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참 신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첫째로 섬겨 왔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속옷을 찢지 않았다는 것은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빼앗기더라도 이스라엘을 이루는 유대인의 민족정신, 즉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만은 찢어지지 않고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멸망해 나라 형태가 없어진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중심에 계신 하나님,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은 이방인들이 없앨 수 없음을 예언한 것이지요. 변함없는 중심을 소유한 민족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김진홍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 마을버스**
 - 금천 07번(교회앞 하차)
-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오늘날에도 그들의 율법을 지키려는 변함없는 중심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변함없는 아픔의 중심을 혈통으로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난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또한 독립한 뒤 짧은 기간에 선진국가로 떠오르면서 그들 민족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입증하였지요.

호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예수님의 속옷을 로마 병사들이 찢을 수 없었던 것처럼, 어떤 이방인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었고 결국 그들은 독립하여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4.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님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큰 못이 생살을 뚫고 들어오는 고통뿐 아니라 체중으로 인해 못 박힌 양손과 양발이 찢기는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피와 물을 다 쏟아야 하기에 갈증과 탈진으로 인한 고통을 도저히 짐작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강렬한 햇볕이 내리쬐는 사막 지대의 독한 벌레 떼가 피 냄새를 맡고 몰려와 상처 난 몸과 양손과 양발에서 흐르는 피를 빨아 먹고, 악한 백성은 죄 없는 예수님을 희롱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침을 뱉고 갖가지 욕설을 퍼부었지요. 이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참으로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 박히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바로 사람이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45절에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손과 발로 범하는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혈기가 나면 손으로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도적질과 도박을 해 패가망신합니다. 그런가 하면, 발로 폭력을 행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죄를 짓기도 하지요. 도둑질하려고 해도 발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니 발을 움직여 죄 짓고 지옥에 가느니 차라리 그것을 잘라 버리고 절뚝발이로 천국에 가는 편이 낫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눈으로 좋은 것을 보면 탐심이 일어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봄으로써 간음도 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눈을 빼내 죄 짓지 않음으로써 천국 가는 게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구약 시대에는 눈으로 죄를 지으면 눈을 빼야 했고 손으로 죄를 지으면 손을, 발로 죄를 지으면 발을 잘라야 했으며, 살인하거나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신 19:19~21). 만일 십자가 고난이 없었다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손으로 죄를 지으면 손을, 발로 죄를 지으면 발을 찍어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심으로 보혈을 흘려 손과 발로 짓는 죄를 모두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범죄한 손과 발을 자르지 않아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음으로 지옥 불에 던져받지 않

도록 예수님께서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진정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요일 1:7).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손과 발에 못 박혀 고통 받으셨음을 정녕 믿는 사람은 다시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한 것을 마음 중심에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죄를 버리지 않고 예전 모습 그대로 사는 사람은 참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며 구원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믿음이 약할 때는 거듭 범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중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죄를 버리기 위해 노력해 나가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시지요. 다시 은혜를 주시고 죄를 버릴 능력을 주십니다. 죄를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요. 하나님 자녀라면 마땅히 죄를 버리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함락이나 유대인들의 고난, 이스라엘의 멸망과 재건 등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로서, 그중 하나가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깨어 기도하며 신속히 신부 단장을 마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외 곳곳에서 보내온 특송 영상



주를 찬양해요 내 맘 다해
I sing His praise with all my heart.

이스라엘 드미트리 페트로프스키 목사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지키셨네
The promise of God protected our ancestors and us

이스라엘 올렉 하진 목사



몽골만민교회 무용팀



내 마음 열어 내 입술 열어
I open my heart. I open my lips

몰도바만민교회 찬양팀



할렐루 할렐루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Hallelu, Hallelu, praise Him, give glory, Hallelujah!

콜롬비아만민교회 하늘 영광팀



갈급한 우리 영혼
We are thirsty!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만민교회 성가대



호산나 호산나
Hosanna, hosanna

말레이시아 6개 농이만민교회 연합



성령의 겸 가진 자 하나님 은혜 받은 자
Have you experienced the shepherd's power?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만민교회 찬양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최고의 신앙생활'

박영자 집사
(56세, 중국 1교구, 사진 가운데)

저의 친정어머니(김연옥 집사)는 2003년 만민중앙교회에 등록하셨는데, 당시 겨드랑이에 있던 큰 혹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뒤 사라지는 신기한 체험을 하셨습니다. 그 뒤 중국에 사는 세계 좋은 하나님과 주님에 대해 전하시며 신앙생활이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어머니의 전도로 2011년에 인터넷으로 등록해 만민의 양 떼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2012년 3월, 세계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혈이 계속돼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자궁암 말기라는 것입니다. 의사는 수술로 자궁을 드러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상황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수 있으니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고 하셨습니다. 저를 위해 21일 끼니 금식을 하시며 열심히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힘쓰셨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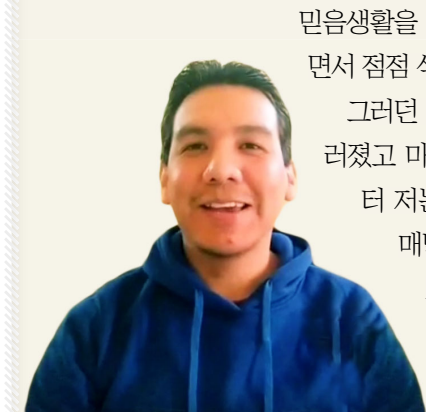
그리고 당회장님께 부탁드려 저를 대신해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 시간대에 중국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였지요. 어머니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당회장님의 기도를 통해 저의 자궁암을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자 저는 만민중앙교회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듬해인 2013년에 한국에 오게 되었고, 충만히 신앙생활 하면서 20년 된 퇴행성관절염까지 깨끗이 치료받았지요.

이뿐 아니라 남편(마창호 집사)도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왼쪽 눈 중간에 검은 줄이 생겨 시야가 3분의 2밖에 보이지 않아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시망막 혈관 파열이라며 수술을 권유했지요. 하지만 2016년 8월 만민하계수련회에 참석

해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받은 후 치료되었고 0.3, 1.5였던 좌우 시력이 모두 1.5로 좋아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체험하며 당회장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밝히 아가니 천국을 소망하며, 말씀 안에 거하고자 날마다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지요.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아가며 순종하는 삶,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할 때 응답받고 축복받는 삶, 이것이 최고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놀라운 권능과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치료받았습니다”

마우리시오 산체스 성도
(37세, 스페인 산탄데르)

믿음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뜨거웠던 저의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식어져 결국 세상 유혹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불안증세가 심하게 나타나 바다에 쓰러졌고 마치 심장 발작이 일어난 것처럼 느껴졌지요. 그날부터 저는 공황장애를 겪게 되었는데, 치료받으러 하나님께 매달리며 회개하니 그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치료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고 세상 유혹에 다시 빠져들었지요. 연약한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던 얼마 후 공황장애 증상과 우울증이 더 심해진 것입니다. 그제야 저는 철저하게 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했고,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만민중앙교회 이복님 원장님(만민기도원)께서 인도하시는 ‘중남미 랜선 은사집회’ 소식을 듣게 되었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확신에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어둠의 세력이 제가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생각과 마음을 방해하였지요. 이에 저는 금식으로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3월 8일 은사 집회 당일, 저희 가족(아래 사진)은 이날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시차로 인해 새벽에 집회를 참석했는데, 시원함과 평안함이 제 몸과 집 전체에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마치 하나님의 손길이 어루만져 주시는 듯했고 마음이 매우 후련하고 개운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느끼며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영이 잠에서 깨어난 느낌이었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주어져 기도하니 신앙생활은 예전처럼 다시 충만해졌지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는 늘 설교를 통해 “마음의 할례를 멈추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하시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부 단장을 마치고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잊고 살았지만 성령님은 저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셨고 제가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지요.

‘랜선 은사집회’는 놀라웠습니다. 시공을 초월해 만민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회복한 저는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6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6507-753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임서면 향한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세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순천만민성결교회 전남 순천시 장평길 13 2층 ☎010-68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52-26(청운로 129)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1층 ☎010-5510-6300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절물 2길 32 해피하우스 701호 ☎064)712-0058, 010-2689-2332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창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